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 VIP 리포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 5C .....	3
3. 시사점 .....	8
<b>【별첨】</b> .....	11
<b>【HRI 경제 통계】</b> .....	13

## &lt; 요약 &gt;

## 개요

- **(현상)** 국내 소비 시장은 경제발전에 따른 질적인 소비 수요 증가, 경기 침체에 의한 구매력 저하, 인구·가구 구조 급변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직면
- **(연구목적)** 최근 소비 시장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소비 패턴에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 5C

- ① **가치전환형 소비(Conversion)**  
: 소비에 대한 사고방식이 소유가치 중심에서 이용가치 중심으로 전환
- ② **미래대비형 소비(Concern)**  
: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불안·걱정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비하는 소비 확대
- ③ **편리형 소비(Convenience)**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편리형 소비 증가
- ④ **충전형 소비(Charge)**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휴식·충전형 소비 확산
- ⑤ **위로형 소비(Comfort)**  
: 가족규모 축소, 경쟁사회 등에 따른 고독과 스트레스로 위로형 소비 발생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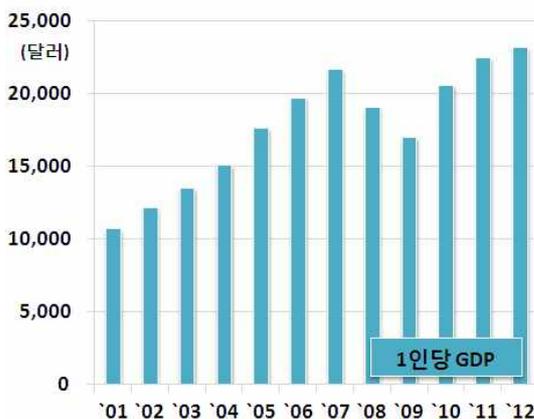
- 첫째, 내구재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렌탈·임대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둘째, 국가의 공적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 셋째,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에 대응해 지속적인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정책 및 소매판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넷째, 여가산업의 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의 소비 산업화와 관광 자원 확충을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 유인이 요구된다.
- 다섯째, 심리 위로형 산업의 활성화, 대형화, 전문화에 대응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1. 개요

○ 국내 소비시장은 경제발전에 따른 질적인 소비 수요 증가, 경기 침체에 의한 구매력 저하, 인구·가구 구조 급변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직면

-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 단계가 상승하면서 질적인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
  - 한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약 23,000달러(명목가격기준)로 금융위기 여파에 인한 시기(08~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IMF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1인당 GDP 기준 세계 순위는 2012년 현재 34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 단기적 경기 요인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성장과 가계 소득 간 괴리로 소비 구매력 약화
  -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2.0%로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2008년 2.3%, 2009년 0.3%)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임
  - 2012년 국민처분가능소득<sup>1)</sup>은 약 1,112조원으로 3.8% 증가에 그쳤으며 이 중 개인의 비중(개인/국민처분가능소득)은 2001년 68.3%에서 2012년 63.6%로 하락

<1인당 GDP 및 세계순위 추이>



자료: IMF.  
주: 명목가격, 달러 기준.

<실질GDP성장률 및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개인부문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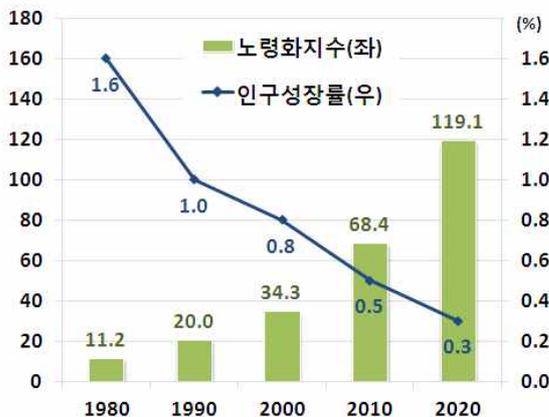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 국민처분가능소득은 크게 개인, 정부와 법인의 소득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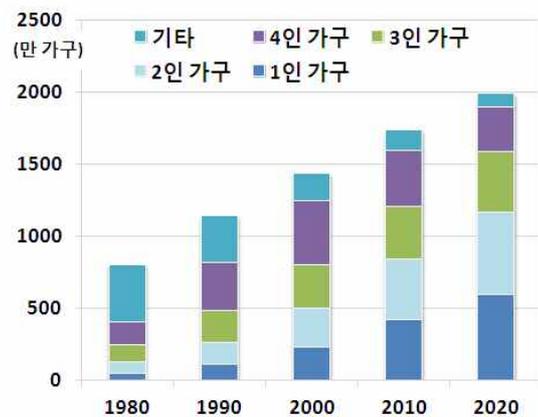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로 인구성장률은 1980년 약 1.6%에서 2010년 0.5%로 하락하는 등 인구 규모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0~14세) 100명 대비 고령인구수(65세이상))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면서 4인가구 비중을 추월(2010년 22.5%)했으며 2030년까지 32.7%까지 증가할 전망
- 과거 전통적 가구 형태인 4인 가구가 분화되면서 1~2인 중심의 소형 가구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1~2인 가구 비중은 2010년 48.1%, 2020년 58.5%, 2030년 65.6%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인구증가율 및 노령화지수 추이>



<가구원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2) 인구성장률=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연구목적) 최근 소비 시장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소비 패턴에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2)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함. UN의 인구 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2. 최근 가계 소비트렌드 변화의 특징 : 5C

○ 가치전환형 소비(Conversion) : 소비에 대한 사고방식이 소유 가치 중심에서 이용 가치 중심으로 전환

- 가계의 내구재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정체
  -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가계의 내구재<sup>3)</sup> 지출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내구재 지출 비중은 2003년 3.5%에서 2007년 5.2%까지 상승함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지속되면서 2009~12년 내구재 소비 규모는 약 12만원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
- 소비 관련 인식이 이용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렌탈 산업이 성장
  - 2008~11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연평균 27.6%의 고성장세를 보인 반면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연평균 -1.7%의 감소세를 보임
  - 또한 과거 비데나 정수기 중심의 임대·렌탈 시장이 가전, 가구 등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임대업(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이 동기간 연평균 29.1% 성장함

<가계 내구재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임대업 연평균 성장률>

산업 구분	'08~'11
부동산임대및공급업	2.7%
주거용건물임대업	27.6%
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	-1.7%
자동차임대업	12.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13.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26.3%
서적 임대업	-13.0%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 품 임대업	29.1%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주: 매출액 기준.

- 3) 내구재는 통계청의 가계수지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원 자체적으로 분류함.  
내구재 = 가구 및 조명 + 가전 및 가전용기기 + 자동차구입 + 기타운송기구구입 + 영상음향 기기 + 사진광학장비 + 정보처리장치 + 기록매체.

○ 미래 대비형 소비(Concern) :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에 대해 불안·걱정이 가중되면서 가계가 이에 대비하는 소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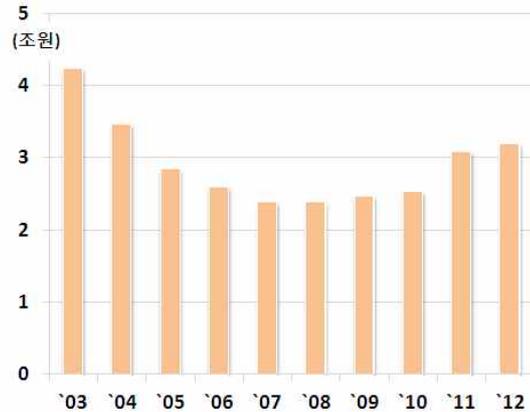
-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보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계의 보험비(민간보험) 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7~09년을 제외하고 가계의 보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총소비지출 대비 보험비(민간보험) 지출 비중은 2008년 2.5%에서 2012년 2.8%로 소폭 증가
  - 공보험인 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총가계지출 대비 보험(공보험+민간보험) 지출 비중은 2003년 7.1%에서 2012년 9.0%까지 상승
-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복권 판매가 과열되고 있음
  - 2002년 '로또' 도입 등으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던 복권 산업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판매량이 반등하며 3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
  - 정부는 2009년 이후 복권 등 사행산업의 매출 한도를 설정했으나 최근 2년간(2011~12년) 복권 발행 실적이 정부의 권고 매출 한도를 초과<sup>4)</sup>

<가계 보험비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복권 판매 추이>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에는 복권 판매액은 권고 매출한도 2조 8,046억의 약 9.8%(2,759억)를 초과했으며, 2012년에는 권고 매출한도 2조 8,753억의 약 10.8%(3,101억)를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함.

○ 편리형 소비(Convenience)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싱글슈머(Single+Consumer)' 등장으로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편리형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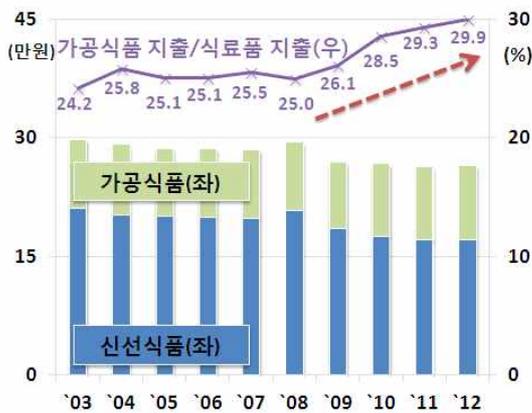
- 가계의 식료품 구매 패턴이 변화하면서 간편하고 빠르게 소비 가능한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

- 가계의 식료품 소비 중 가공식품<sup>5)</sup> 지출액은 증가하고 신선식품 지출액은 감소하면서 가공식품의 소비 비중은 2012년 약 30%로 2009년 이후 급증
-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소비 성향의 증가로 가공식품 소비 비중이 증가

-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이 여타 판매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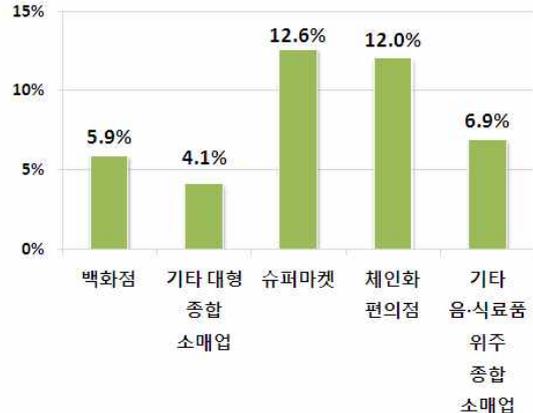
- 2008~11년 3년간 소매판매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백화점 5.9%, 대형마트(기타대형종합소매업) 4.1% 등의 성장세를 기록한 데 비해,
- 소비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의점(체인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2.0%와 12.6%을 보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가깝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반영되어 접근성이 높은 판매채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

<가계 가공식품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소매업 연평균 성장률(2008~11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  
주: 매출액 기준.

- 5) 가계수지 항목 중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자체적으로 분류함.  
 신선식품 = 곡물+육류+신선수산물+연건수산물+과일 및 과일가공품+채소 및 채소가공품+해조 및 해조가공품.  
 가공식품 = 곡물가공품+빵및떡류+육류가공품+기타수산물가공+당류및과자류+커피및차+주스 및기타음료.

○ **충전형 소비(Charge)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휴식·충전형 소비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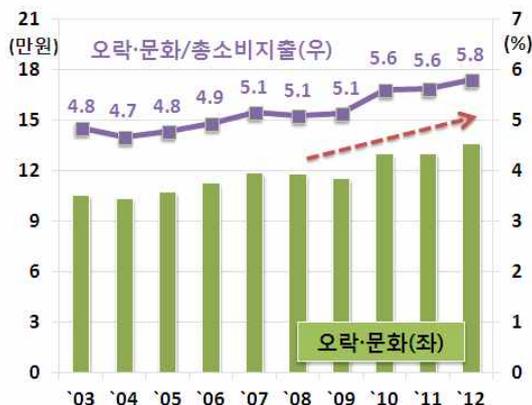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니즈로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이 상승하고 있음

- 2009년 이전까지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액은 11만원 수준에 그쳤으며 총소비 지출 대비 비중 역시 4% 후반~5% 초반 수준을 유지
- 그러나 2010년 이후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액이 12만원을 넘어섰으며 총소비 지출 대비 비중 또한 2012년 5.8%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여가 소비의 증가로 예술, 스포츠, 오락, 숙박 등 관련 산업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여가 관련 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2008~11년 산업 경기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4% 고성장을 함
- 숙박업의 경우 여관업(2008~11년 연평균 -2.5%)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휴양콘도운영업의 매출이 동기간 연평균 16.3% 증가함
- 불황에도 여가 관련 산업의 성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가계 오락·문화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여가관련산업 연평균 성장률(2008~11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주: 매출액 기준.

○ 위로형 소비(Comfort) : 가족 규모 축소, 사회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고독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위로형 소비 발생

- 가족 규모 축소,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에 따른 심리적 고독감을 애완동물 등으로 위안하면서 가계의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증가

· 가계의 애완동물·화훼 관련 지출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약 5,000원 규모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 이후 급증했으며(전년대비 2010년 8.1%, 2011년 8.4%, 2012년 6.7% 증가)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도 0.3% 수준에 육박

· 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등 가족 규모 축소에 따른 외로움으로 인해 애완동물을 통해 위안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애완동물 수요가 증가

- 가계의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산업 매출액 또한 급증하는 추세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지출액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지출액 합계로 애완동물 산업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이전까지는 2,000억 미만 수준을 유지했으나,

· 이후 가계의 관련 지출 급증으로 2011년 매출액은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애견관련 미용 및 보건의료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성장률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가계 애완동물·화훼<sup>6)</sup> 지출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애완동물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주: 매출액 기준.

6) 가계수지 세부 항목 중 '화훼관련용품 + 애완동물관련물품 +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지출 항목의 총합으로 계산함.

### 3. 시사점

첫째, 내구재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렌탈·임대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가전, 자동차 등 렌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소유권과 사용권의 구분 확립,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임대주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둘째, 국가의 공적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인 보험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 보험사 수익 기반의 다변화, 해외 사업 강화 등 국가 주력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보험업의 육성과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보험약관 개정, 공격적 외형 경쟁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보험금 지급 선진화, 합리적 보험요율 책정 등 소비자의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총 접수 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과반수(48,471건, 51.1%)로 전년대비 증가율(18.8%) 또한 기타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 증가율을 상회)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민원 감축’을 핵심 과제로 선정 추진” 참고, 2013.4.5.

셋째,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도모하고 소매판매업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소비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함
  - 가공식품 산업은 식량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이면서 향후 개도국의 구매력을 흡수할 수 있는 주력 수출 산업이 될 수 있음
  - 현재 세계 가공식품 교역 규모는 전체 상품 교역의 약 7%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나, 이 시장의 대부분은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
  -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 유통 채널의 과점형 성장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대응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 구조 효율화 정책이 필요
  -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중심의 편의점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
  - 업계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독립형 편의점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유통 구조 효율화, 물류 시스템 개선 정책이 필요

넷째, 여가산업의 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의 소비 산업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 유인이 요구된다.

- 여가시간 및 소득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여가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문화·예술 부문이 소비자의 수요와 접목될 수 있는 온·오프 공간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인과 소비자의 소통 확대를 위한 온라인 채널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또한,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등의 예술 공간의 추가적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권의 문화 공간 소외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국내 관광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치중한 나머지 내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여행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 내국인의 관광 수요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자연자원이나 지역축제에 관광상품을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 중앙 및 지방 정부, 국내 및 해외 자본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수준급의 테마파크 조성 등의 인공 자원 개발이 시급

다섯째, 심리 위로형 산업의 활성화, 대형화, 전문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 등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개인의 고독감,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에 대응하여 애완동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용품, 진료서비스, 미용 등 기존 관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보험, 여행, 유통 등 신규 사업의 창출이 기대
  - 또한 애완동물산업 이외에도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신규 산업으로 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애완동물산업 등 심리 위로형 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체들의 대형화·전문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 **HRI**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2072-6239)

## 【별첨1】 소비 이론<sup>8)</sup>

### ○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 가계는 현재소득이 아닌 생애 총 소득에 의해서 현재 소비 수준을 결정
- 따라서 단기적으로 소득이 변동할 때, 가계는 이를 일시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비를 크게 변동시키지 않음
  - 단, 항상소득은 과거 소득의 가중평균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 변동이 전혀 소비 행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님

### ○ Hall과 Sargent의 임의보행가설(Random Walk Hypothesis)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과 합리적기대이론(Rational-Expectation Hypothesis)이 결합하면서 소비가 임의 보행을 한다는 이론임
- 이 이론에 근거하면 미래의 소비에 대한 예측을 위한 정보는 현재의 소비에 집약되어 있고 과거의 소득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는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

### ○ 유동성 제약과 예비적 저축

- Flavin(1981)은 임의보행가설이 경험적으로 잘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으며, 이에 이론과 경험의 불일치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써 ‘유동성 제약’과 ‘예비적 저축의 동기’ 이론이 발전함
- (유동성 제약, Liquidity Constraint) 소비자가 평생의 총자산을 고려하여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중년기의 소득을 노년기와 유년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게 되어 적정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 않고 소득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짐
-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이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것이 소비의 민감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이론임

8) 현대경제연구원(2004), “내년에도 소비회복 어렵다”, 경제주평 2004.10.12.

**【별첨2】 최근 10년간 가계 수지 동향 및 비목별 구성비**

(1) 가계수지 동향

(단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소득증가율	1.1	2.1	0.9	2.5	2.7	1.5	-3.3	2.8	2.0	3.7
가계지출 증가율	2.0	1.9	1.2	2.2	1.9	0.9	-2.3	3.5	0.7	1.6
소비지출 증가율	1.7	1.6	1.4	1.5	1.2	0.5	-2.7	3.0	0.0	1.1
비소비지출 증가율	3.4	3.3	0.5	4.9	4.4	2.3	-0.8	4.9	3.0	3.0
흑자율	22.0	22.2	21.9	22.4	23.3	23.9	23.1	22.5	23.9	25.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주: 1)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2) 흑자율 = (소득 -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 (소득 - 비소비지출).

(2)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단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식료품 · 비주류음료	16.5	15.8	15.3	15.2	14.8	15.1	14.3	13.8	13.6	13.4
주류 · 담배	1.2	1.4	1.3	1.3	1.3	1.2	1.2	1.2	1.2	1.2
의류 · 신발	6.4	6.3	6.4	6.4	6.4	6.4	6.1	6.4	6.7	6.7
주거 · 수도 · 광열	9.5	9.4	9.6	9.6	9.4	9.5	9.8	10.0	10.1	10.1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3.1	3.2	3.4	3.5	3.7	3.4	3.5	3.8	3.7	3.8
보건	5.2	5.3	5.5	5.7	5.9	6.0	6.5	6.6	6.7	6.7
교통	12.1	12.2	12.2	12.4	12.1	11.7	12.4	11.6	11.5	11.6
통신	5.4	5.6	5.7	5.7	5.8	5.8	5.8	6.0	6.3	6.8
오락 · 문화	4.8	4.7	4.8	4.9	5.1	5.1	5.1	5.6	5.6	5.8
교육	12.5	12.6	12.5	12.2	12.3	13.2	13.7	13.3	12.9	12.4
음식 · 숙박	13.8	14.2	13.9	13.5	13.7	13.8	13.0	12.8	12.7	12.9
기타상품 · 서비스	9.1	9.4	9.7	9.8	9.5	9.0	8.6	8.8	9.1	9.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 HRI 경제 통계

---

###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3.1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6	2.5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0.7	2.2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5	4.8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28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9	259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5	-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5.6)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2.5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85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